

생태사회와 불교

잡초는 없다. 해충도 없다

‘잡초·해충’ 존재해야 할 이유 있다

농사는 풀과 잡초와의 전쟁

벌초를 가면 숙대밭같이 되어 버린 산소와 매들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이놈의 잡초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농사짓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게 뭐냐고 묻는다. 돌아오는 대답은 풀매는 일이라. 농사는 그야말로 풀과의 전쟁, 잡초와의 전쟁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잡초’란 ‘이름 없는 풀, 이름을 모르는 풀’이라는 뜻이외에 ‘쓸데 없는 풀, 소용없는 풀’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대개 이름은 결국 사람이 붙여주는 것이어서 후자의 의미로 ‘잡초’라고 부른다. 여기서 ‘쓸데없다, 소용없다’는 말은 인간에게 쓸데없고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잡’이라는 접두어는 다양하게 쓰인다. 별볼일 없는 쓸모없는 것은 ‘잡것’이라고 하고, 사람에게 ‘잡늬, 잡년’, 불필요한 나무는 ‘잡목’이다. 이처럼 인간에게 필요 없는 것은 모두 ‘잡’이라고 불리고, 결국 잡초는 제조제로 모두 없애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잡’의 기준은 누구일까? ‘사람’이다. 이름과 해로운 것, 필요하고 불필요 한 것의 기준은 ‘사람’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사람에게 해로운 벌레를 ‘해충’이라고 하며 이로운 것은 ‘익충’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충은 ‘박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인간으로부터 이로운지 해로운지의 결정과 판단에 의해 생존되거나 절멸 당할 운명에 있는 것이다.

과연 해충은 해충약으로 절멸시켜야 하는 존재인가? 잡초는 제조제로 완전히 제거해야 할 존재인가? 식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서로 상호의존하는 존재로 생태계에서는 촘촘히 얽혀있는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인간의 이로운 것과 해로운 판단을 뛰어넘는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아닐지라도 생태계내에 어느 동물이나 식물에게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종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한 인간이 지구상에 오로지

가장주인으로 행세하고 생물을 죽이고 살리는 여탈권을 판단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데서 바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것을 ‘인간중심적 가치’, 또는 ‘인간중심성’이라고 표현한다. 때로는 ‘탈생물적 교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다시 결론을 말하면, 잡초란 없는 것이다. 모든 풀은 인간의 필요성으로 판단, 그 이전 존재들이다. 아니 그러한 가치판단을 뛰어넘어 생태계내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들이다. 해충이나 익충이라는 인간중심적 편견과 관념이 모든 식물과 생물을 함부로 대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멸종시키는 근본인식이 되어왔다.

이른바 ‘박멸’ 한다는 사고

한 생물을 해충으로 규정하면, 나쁜 것은 없애야 한다는 인식으로 나아간다. 박멸이다. 그래서 씨를 말려버리는 해충약, 제초제, 세균을 박멸하는 약을 개발한다. 서구의 의학의 역사는 세균의 박멸의 역사라고

‘이롭다·해롭다’ 생명 구분은 ‘인간 중심성’…반자연적 행위

생태계 주인 행세하는 인간 누구에게 권리 위임 받았나?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현대 생물학에서는 그 생명들이 박멸되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가까운 장래에 결국 우리에게 나쁜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당시에는 해로웠는지 모르지만 먼 장래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생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인간은 ‘좋다. 싫다. 이롭다. 해롭다’를 자기식 기준을 근거로 식물을 구분하고 곤충과 동물을 구분한다.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해로운 것은 박멸한다. 더 나아가 싫은 사람과 좋은 사람을 구분한다.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구분하며 천사와 악마를 구분한다. 그래서 악마를 처단하고 사탄을 죽여야만 좋은세계, 편한 세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분법은 곧 대립을 의미한다. 대결과 경쟁, 전투를 의미한다. 상대를 제압하여, 결국 자신만이 주도권을 쥐고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명은 ‘좋고 싫음, 이익과 해로움’이라는 인간의 집단적 주관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되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구분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반자연적 행위를 저질러왔고, 그러한 자연인식이 대립과 경쟁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결국 인간



농사에서 해충 제거를 위해 농약을 살포하는 모습들. 하지만 소수의 세균과 해충들은 내성을 확보해 자신을 보호한다. 결국 더 강한 해충약과 제초제가 사용되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과 인간의 경정으로 확대되었고, 생명에 대한 박멸이 곧 타인종과 타국에 대한 박멸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생명은 박멸한다고 그리 쉽게 박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세균이나 생애 주기가 극도로 짧은 생명들은 박멸의 상황에서 대부분 죽지만 돌연변이를 통해 소수는 내성을 확보하며 열악한 상황을 견뎌 유전자를 보호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 결국 더욱 센 해충약, 제초제를 사용해야만 효과를 발휘하는 생명으로 진화된다.

우리는 옛날에 모기뿔을 나눠 모기를 쫓았다. 모기약을 뿌려 박멸하려는 지금과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귀신도 굿을 해서 ‘쫓는다’고 표현했다. 원한을 풀어주고 왕생극락하게 하며 나아가 접근하지 않게 쫓는 것

은 당연히 아니다. 실제의 성격은 우리의 판단과 선입견 저널어에 있다. 것처럼 실제의 사실이 아닌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착각하여 동물과 식물, 곤충과 벌레에 대해 ‘좋다. 싫다’라는 분별을 갖게 되었다. 이로운 동물, 해로운 동물, 더러운 동물, 징그러운 동물... 등. 이러한 분별이 곧 생명들을 함부로 하게 하여 멸종과 종다양성을 파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지구의 허파이자 산소를 생산하는 공장인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고 있는 한편, 아마존의 엄청난 벌채로 그곳에 사람에게 발견되거나 학술적으로 등재되지 않은 수천만종의 곤충, 식물, 동물들이 하루에도 수십종씩 멸종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들은 몇십억년간의 생명 진화의 마지막 산물이다. 그것이 인간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도 되기 전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신경세포인가 암세포인가

의학적으로 우리 몸속의 세포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 위치에 맞게 증식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신경세포’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반대로 몸전체에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무한 증식하며, 다른 조직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의 증식, 자기만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암세포인 것이다.

암세포는 대단히 빨리 자라고 성장하며 퍼져나간다. 살기좋은 다른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옮겨간다. 암세포 자체로 보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체의 다른

자기만 증식하는 암세포처럼

분별이 멸종·종 다양성 파괴

모든 생명은 상호의존적 관계

자연이 살아야 다함께 공존

기관과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증식하지만 몸전체를 죽게 하고 자신도 죽게 만드는 ‘미친세포’인 것이다.

인간은 지구상의 수많은 동물종, 포유류의 한 종일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주인인양 행세하며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작은 생명을 멸종시키면서 스스로 거대한 경제력 발전을 통해 무한히 증식해간다. 자신만을 본다면 분별 발전, 성장이다. 그러나 지구전체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여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부처님의 연기법은 바로 신경세포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인간이 지구전체와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내가 살고, 자연이 살아야 나도 살며, 모두가 더불어 함께 공존해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 위기는 바로 실재를 제대로 보도록,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제대로 살도록 깨닫게 해주는 일종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정길 (에코붓다) 전 공동대표, 생태사회연구소 연구원

Advertisement for Sungjongsang Bell. Features a large bell, a foundry scene, and a portrait of a man. Text includes '범종의 명가 성종사', '이 사람이!',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ungjongsang.